

타이어, 2006년 중반까지 “불황”

골드만삭스증권, 타이어 주식 매입 중단 권고 ... 한국·금호 정점

골드만삭스증권은 11월21일 타이어 생산기업이 원재료 코스트 증가와 타이어 수요 감소로 2006년 마진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며 투자시점을 2006년 중반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타이어산업 주기가 단기간에 주가 흐름과는 반대로 돌아설 것이며 2006년 강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타이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타이밍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타이어 주가가 시장 평균인 4.3배와 글로벌 타이어기업의 4.9배보다 높은 5.3배에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가치평가) 상으로 정점에 도달해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가 충분한 주가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타이어 시장이 외국기업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의 입지가 고가제품 위주 전략으로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나 강한 실적이 기대되는 2007년에 앞서 2006년 중반에 투자시기를 조율하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타이어기업 분석을 시작하며 한국타이어에 대해 1만2200원을, 금호타이어는 1만4800원, 넥센타이어에 대해서는 1만9700원의 목표주가를 제시했다.

<화학저널 2005/11/22>